

“은행株, 저가매수 기회”... 환율 리스크에도 주주환원 기대감

KRX은행지수, 이달 3.7% 올라
外人 매도세 약화... 순매수 전환
업종 불확실성 주가 조기 반영 돼
올해 코스피 대비 높은 상승세 전망

최근 저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은행주들이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자본비용 하락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업 기대로 은행주의 반등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KRX은행지수는 3.7% 상승했다. 개별 종목으로는 KB금융이 7.12% 상승하며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고, 신한지주(3.88%), 하나금융지주(2.11%), 우리금융지주(0.97%)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정치적 불확실성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해 은행주들이 10% 넘게 하락했던 상황과는 대조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은행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이미지.

적인 모습이다.

이번 반등은 저가 매수세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를 각각 598억원, 42억원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기관 투자자들도 신

한지주 535억원, 하나금융지주 115억원을 사들이며 상승세를 뒷받쳤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외국인 매도세가 현저히 약화되고, 일부 순매수로 전환되

고 있다는 점에서 순매도세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수급상의 우려요인이 해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주 주가 조정 현상도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은행의 주주환원 여력을 가능할 수 있는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비율 하락이 예상되면서 밸류업 계획 이행 가능성에 우려가 나오기도 했으나, 업계에서는 2월 초 실적 발표 시즌을 계기로 이러한 우려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해외법인 출자금과 같은 비거래적 성격의 외환포지션은 4분기부터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하락폭이 일정 부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증가 등의 보통주자본 증가요인이 이를 상쇄하면서 CET 1 비율 하락 폭이 아주 커지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말배당 지급에 따른 추가 하락 요인도 위험가중치 높은 자산의 축소 등 위험가중자산(RWA) 관리 노력으로 인해 상쇄될 것”이라며 “밸류업 공시대로 은행들의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은 올해에도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올해 은행주 주가가 코스피 지수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 업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만큼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현 은행주 밸류에이션은 원·달러 환율 상승, 규제 리스크 등 여러 우려들이 반영된 수준”이라며 “KB금융뿐만 아니라 지방은행들까지도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며 원리원칙에 입각한 주주환원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에도 주주환원을 우상향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국내증시 ‘훈풍’ 불까... 빚투·MMF 늘었다

신용거래잔고, 한 달만에 6.14% ↑
MMF, 200兆 근접... 기대감 반증

새해 국내 증시 ‘훈풍’을 기대하는 투심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머니마켓펀드(MMF) 설정액도 늘고 있어 증시 대기자금도 커지는 모습이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용자 잔액은 지난 13일 기준 16조3851억원으로 지난해 12월 13일(15조2493억원)보다 935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만에 약 6.14% 증가한 규모다.

신용거래잔고란 투자자가 증권사로 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주식을 매수하거나 보유 주식을 담보로 추가 자금을 빌린 후,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시장 상승을 기대하며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금을 확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14일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557억원, 2954억원을 순매도하고, 개인은 2964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연초 국내 증시는 지난해 말보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심이 회복되고 있는 추세다.

미국 주요 지수들과 비교해도 코스피의 회복세는 두드러졌다. 올해 들어 코스피는 4.68% 증가한 반면, S&P 500은 0.13%, 다우존스30은 0.59%, 나스닥은 0.028%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하는 동안 코스피가 상승한 것은 지난 2022년 9월 이후 처음이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국내 증시로 되돌아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며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밸류에이션 매력과 밸류업 정책 등에 관심이 늘면서 상반기에는 이러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머니마켓펀드(MMF)도 200

조원에 근접하며 규모를 키우고 있다. 대개 ‘빚투’가 늘어나면 MMF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초 효과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현금자금이 늘어나는 추세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신용거래용자잔액이 늘어나는 것은 올해 들어 한국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있고 또 더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의 방증이다”라며 “MMF까지 많아지는 이유는 여전히 증시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도 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정 수석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MMF를 늘려나가는 이유는 12월 결산을 하는 법인들이 3월 주주총회를 준비하며 현금 확보를 해두는 방법이기도 하다”며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기업이 MMF에 자금을 넣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낮은 예금 금리를 피해 MMF를 활용한 것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코스닥시장 공시유형별 공시건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수시공시	공정공시	조회공시	자율공시	계	1사당 평균
2023년	19,242	1,018	103	1,986	22,349	13.1
2024년	20,851	938	112	1,959	23,860	13.4
증감(률)	+1,609(+8.4)	△80(△7.9)	+9(+8.7)	△27(△1.4)	+1,511(+6.8)	+0.3(+2.3)

* 상시 공시 건수에는 공시유형별 영문공시 건수를 포함

/한국거래소

코스닥 ‘불성실 공시’, 전년보다 51% 급증

거래소 ‘코스피·코스닥 공시실적’

지난해 코스닥기업들의 불성실 공시가 113건으로 전년보다 50% 이상 늘었다. 부실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관련 내용이 집중 발생해 투자자들의 주의와 함께 당국의 대처가 특히 필요해 보인다.

14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4 유가증권시장·코스닥 공시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1개사당 평균 공시건수는 약 29.8건으로, 전년 대비 4.1건 늘었다. 특히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등이 실시되면서 영문공시 건수가 전년 대비 58.2% 늘어났으며, 제출 법 인수도 41.7% 증가했다. 이외에도 수시 공시는 1만7046건으로 2023년보다 11.3%(1724건), 자율공시는 지난해 1621건으로 16.5% 증가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도 34건으로 전년 대

비 소폭(1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불이행(-1건) 및 공시반복(-1건)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공시 변경은 2건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113건(95개사)으로 전년 75건 대비 38건(36개사) 늘었다.

코스닥시장 전체 공시 건수는 2만 3860건으로, 2023년 대비 6.8% 늘었다. 수시공시 중 1609건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불성실공시 내용은 자금조달 관련으로 약 28%를 차지했다. 2023년 23건에 불과했던 자금조달 관련 불성실공시는 2024년에 51건으로 121.7% 급증했다.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불성실 공시도 7건에서 23건으로 늘었다.

특히 관리종목 및 투자환기 지정종목 등 부실기업을 중심으로 불성실공시가 많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61건에 달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테슬라 ‘변동성 주의’, 양자컴퓨터株 ‘폭락’

해외주식 Click

테슬라, 10년 만에 역성장... 6.08% ↓
리제티컴퓨팅, 아이온큐 ‘주가 쇼크’

새해 들어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은 테슬라와 양자컴퓨터 관련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지만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개미 무덤’이 우려되고 있다. 테슬라는 실적 부진 여파로 주가 등락을 반복했으며, 아이온큐·리제티컴퓨팅 등은 양자컴퓨터와 관련된 부정적 전망이 제시되면서 주가가 약 40%대 급락했다.

14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1월 7일~13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테슬라로 7억 685만달러(1조342억원)를 사들였다.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되는 테슬라를 집중 매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테슬라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뤄졌던 11월 5일(현지시간) 이후 이달 13일까지 주가가 66.08% 폭등했다.

다만, 지난 2일(현지시간)에는 시장에 상치를 밀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6.08% 급락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은 178만 9000대로 2023년 180만9000대 대비 1% 감소하며 10년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서학개미들의 최애 종목인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이 주의되는 가운데, 또다른 선호 종목인 양자컴퓨터 관련주는 ‘주가 쇼크’를 보였다. 서학개미들은 최근 들어 지난 7일까지 양자컴퓨터 관련 종목인 리제티컴퓨팅과 아이온큐를 집중 매수했다.

하지만 지난 7일(현지시간)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양자컴퓨터에 대해 “양자컴퓨터 기업과 협업하고 있지만 유용한 수준까지는 30년이 걸릴 것이고, 15년 뒤에야 초기 단계 제품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폭락했다. 지난 8일 리제티컴퓨팅은 45.41% 떨어졌으며, 8일부터 13일까지는 68.99% 급락했다. 아이온큐 역시 8일에만 39% 추락했으며, 다음날 6.88% 반등하기는 했지만 8일부터 현재까지 43.81% 내려앉았다. /신하은 기자

LS증권-한국ST거래, 소상공인 지원 ‘맞손’

토근증권 발행 혁신금융 업무협약

LS증권은 한국ST거래와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토근증권 발행(STO) 혁신금융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ST거래는 토근증권 장외거래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LS증권과 한국ST거래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토근증권을 활용한 금융 솔루션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백년가계 매출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토근증권 발행과 유통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백년가계는 30년 이상 고유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인증을 받은 점포를 뜻한다. 오웅진 LS증권 리테일사업부 대표는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